
일반논문

한국 목공(木工) 관련 어휘 연구

— 목공 개념·구성, 도구 관련 어휘를 중심으로

홍기옥*

[초 록]

본 논문은 한국 목공(木工)과 관련된 어휘 표현을 현장조사를 통해 조사하여 관련 어휘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관련 어휘의 조어적 특징과 명명기반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사는 중요무형문화재 제55호로 지정된 소목장(小木匠) 엄태조 장인(匠人)을 제보자로 하여 민속지적 조사 방법을 사용하여 조사하였다. 그를 찾아 한국 목공의 개념·구성, 도구, 행위, 제작품, 기법 등에 관련된 어휘를 조사해 한국 목공 관련 의미망을 구축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정리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조사 어휘 중 어휘 분화가 활발한 목공의 개념·구성, 도구와 관련된 어휘를 중심으로 하였다. 조사 결과물은 어휘 엑셀 자료, 음성 자료, 사진 자료, 동영상 자료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목공과 관련된 자료는 제보자가 실제 발화한 음성을 분절하여 저장하고, 조사 어휘에 해당하는 사진 자료도 가능한 한 모두 수집하였다. 제보자의 생애구술사는 동영상 자료로도 정리하였다. 조사결과

* 위덕대학교 자율전공학부 초빙교수

주제어: 목공(木工), 소목장(小木匠), 도구 어휘, 의미론

Woodworking, Wooden Furniture, Woodworker, Tool Vocabulary, Semantics

관련 어휘(219개), 음성자료(구술자료/음성 분절자료), 사진자료(62장), 영상자료(2개 파일)를 수집할 수 있었다. 수집 어휘의 분석을 통해 관련 어휘의 조어적 특징과 명명기반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사라져가고 있는 한국의 전통문화 중 생활도구와 관련된 어휘를 체계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정리하였으면 한다.

1. 서론

‘소목장’(小木匠)은 나무로 여러 가구(家具)를 전통기법을 이용해 만드는 전문 목수를 말한다. 목수는 대목(大木)과 소목(小木)으로 나뉘며, 소목은 조각장(彫刻匠)과 소목장(小木匠)으로 나뉜다. 즉 주택 등 큰 건축물은 대목이 짓고, 건축물 안에 가구를 꾸미는 일은 소목이 한다. 따라서 소목장이 하는 목공 작업은 그 범위가 넓다. 장롱, 궤함 등을 비롯하여 문방구 등의 세간들과 때로는 각종 목물(木物), 가마, 수레, 농기구, 기타 도구류들까지 소목장의 손에 의해 태어난다.

소목가구는 대체로 원목을 사용하여 목재가 지닌 나뭇결을 최대한 살려서 자연미를 추구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므로 소목가구는 전통 가구의 형태와 규격, 기법, 문양을 근거로 제작된다. 따라서 전통한옥의 주거생활에 적합한 평좌식(平坐式) 가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특히 방의 종류에 따른 안방 가구(장농, 의거리장, 3층장, 단층장, 경대, 혼수함, 반닫이), 사랑방 가구(사방탁자, 문갑, 서안, 서장, 현상, 고비), 주방 가구(찬장, 뒤주, 소반, 함지박, 목판) 등으로 크게 분류된다.

우리나라에서 목공예품이 언제부터 사용되었는지 그 명확한 시기는 알 수 없으나 문헌 기록과 출토 유물로 미루어 적어도 2,00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의 사서인 『후한서』에는 우리 조상들의 목물과 목기에 관한 내용이 다수 보인다. 이에 의하면

‘동이(東夷)들은 그릇으로 조두를 사용하였다. 부여국에서는 장사 지낼 때에 곱을 사용하였고, 동옥저에서도 장사 지낼 때에 큰 나무 곱을 만드는데 길이가 10여 장이나 되었다. 그 한쪽 끝 부분을 열어 놓아 문을 만들고 식구들의 유골을 하나의 곱 속에 안치하는데, 살아 있을 때와 같은 모습으로 새긴 목상을 사람의 숫자대로 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다.¹⁾

『삼국사기』의 기록을 보면 통일신라시대에 목공예에 관한 국가 기관으로 마전, 궤개전, 양전, 칠전 등이 있었다. 마전은 목기 그릇을 제작하는 곳이고, 궤개전은 궤와 책상 그리고 반상류의 제작을 관장하는 곳이며, 양전은 버드나무 가지와 대나무로 엮어서 만든 기물(器物)²⁾을 관장하는 곳이고, 칠전은 옷칠의 채취와 기물에 칠을 관장하는 곳이었다. 이로 보아 이미 신라시대에는 목공예가 부분적으로 또는 전문적으로 발달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려시대의 소목장은 신라시대의 전통을 이어 받았을 것이나 신라시대에 있었던 마전이나 궤개전, 양전, 칠전 등의 국가 기관은 찾아볼 수 없다. 원종(1259~1274) 13년(1272)에는 전함조성도감이 설치되었는데, 당시에는 불교가 성행하여 왕실에서 필요한 각종 함류를 제작하는 기구를 따로 설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고려시대에는 공예가 독자적인 발달은 보이고 있으며, 함과 장류가 많이 사용되었고, 나전상감도 기술적으로 발달하여 미려한 작품들이 전해지고 있다. 현재 일본 등에 전해지고 있는 고려시대의 작품을 보면 규모와 용도는 다소 다르겠지만 대장경 등 불교서적을 넣어두었던 함을 보면, 국가의 조성도감에서 만들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조선시대의 목공예 예술은 일반적으로 사대부 귀족들의 기호에 의하여 발달하였다. 물론 목공예란 생활공간에 의하여 조형적으로 발달하겠지만 그것을 향유하고 미화하는 것은 사대부 부호들의 기호에 의

1) 김삼대자(2003), 『소목장』, 국립문화재연구소, pp. 23-26 참조.

2) 살림살이에 쓰는 그릇.

하여 발달하고 있었다. 양반들은 천민들인 공예인들을 마음대로 경제적인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었고, 풍류적인 사랑방 꾸미기를 중요시 하였기 때문에, 문갑이나 사방탁자, 책상, 책장 등이 요구되어 가구공예의 발달로 이어졌던 것이다.³⁾ 현대에 이르러 서양식 주거문화가 정착하면서 소목가구들은 공예품에 가까워졌다. 그래서 소목장은 국가적 차원의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다.

그러나 급격한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목공제품은 수작업으로 진행되기보다는 기계를 이용하여 대량으로 생산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수작업을 통한 목공예품 생산은 기계를 통한 생산으로 대체되면서 목공작업과 관련된 문화가 달라지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한국의 목공예 관한 연구는 미술사학이나 민속학, 고고학에서 이루어진 것이 대부분이다. 이들 연구는 한국 가구의 종류, 형태, 기능, 예술적 특징, 가구의 상징성 등에 관한 연구였다. 전통 가구 기법을 파악하고, 이를 현대의 가구 생산에 접목하려는 시도가 대다수이다.

본 연구는 중요무형문화재 제55호로 지정된 소목장 엄태조 장인을 제보자로 하여 한국의 목공 관련 어휘를 조사하여, 관련 표현을 국어학적으로 접근하였다. 그를 찾아 한국 목공의 개념·구성, 재료, 도구, 행위, 제작품, 기법 등을 조사하여 한국의 목공 관련 어휘와 표현을 수집, 정리하여 한국 목공 관련 어휘망을 구축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정리하였다.

소목장 엄태조 장인은 초등학교를 졸업한 뒤 형과 서울로 올라가 가구공장에서 가구를 만들고 수리하는 법을 배우다가 중요무형문화재 제55호 강대규 선생에게 사사하고 대구로 내려와 고가구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직접 만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20여 년간 손을 놓지 않았던 전통가구 제작에 대한 기능을 평가받고 싶어 전승공예대전 등에

3) 김종태(1991), 『한국수공예미술』, 예경산업사, pp. 89-91 참조.

나가 동아공예대전 동아공예상, 대구시공예품경진대회 대상 등 다수의 공모전에서 수상을 했다. 또한 합천 해인사 장경판 판가 및 경판 보수, 상주 수암종택 유물보수, 국립상주대 박물관 유물보수, 예천 용문사 대장전 윤장대 보수, 영천 은혜사 백홍암 극락전 수미단 보수, 함안 장춘사 대웅전 수미단 제작 등 다양한 유형문화재 보수에도 참여했다. 이런 공로로 1991년 목공예 명장으로 선정된 엄 명장은 스승인 강대규 선생이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면서 1994년 중요무형문화재 제55호 이수자로 지정받았다. 1996년 대구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10호 소목장 기능 보유자로 지정됐으며, 1997년 대한민국 전통기능전승자로, 그리고 2014년 중요무형문화재 제55호 소목장 보유자로 인정받았다.

본 연구는 조사 대상자와 밀착하여 직접 조사하는 민속지적(ethnographic) 조사 방법을 사용하였다. 개방형 면담조사를 통해 면담조사 중심의 현장조사로 관련 어휘를 수집하였다. 장기간 제보자와 접촉하면서 여러 차례 조사를 진행하였다. 현장 조사에는 준비된 사진 자료와 질문지를 이용하여 제보자를 직접 찾아가 면담 조사를 실시하였다. 면담은 1 대 1 조사를 진행하였고, 녹음기 2대를 동시에 사용하여 조사 자료의 질을 높이고, 혹시 있을 수 있는 자료 소실에 대비하였다. 조사된 어휘는 의미장 이론(semantic field)을 바탕으로 자료를 정리하여 이론적 틀을 마련하였다. 관련 어휘의 분화 양상을 밝혀 어휘 간의 상하 관계를 정리하고, 상하 관계의 구조에서 어떠한 내부적 기제가 반영되어 있는지를 명명 기반을 통해 정리하였다.

어휘자료를 체계화하기 위해서 조사 자료는 Transcriber 전사 프로그램, Excel 프로그램, Protege-5.3.0-win 프로그램⁴⁾을 활용하여 정리하

4) 관련 어휘장 구축 내용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도입한 이론적 배경은 ‘온톨로지’이다. 온톨로지는 광의적으로 ‘실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개념(concept)과 그 개념의 속성(attribute)은 무엇이며, 개념들이 상호간에 의미적으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으며(relation), 개념들의 실질적인 사례(instance)는 무엇인가’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의미적인 개념 집합체로 정의할 수 있다. 온톨로지 구축을

여, 자료의 활용도를 높였다. 또한 소목장의 작업실 도구와 제작품은 물론 작업과정 등 사진을 촬영하고, 제보자의 생애구술은 동영상 촬영을 병행해 하였다. 조사 장소는 제보자 엄태조의 작업실(경산시 와촌면 신한리)에서 진행하였다.



[사진 1] 소목장 엄태조



[사진 2] 작업 중인 장인

전체 조사에서는 목공의 개념·구성, 재료, 도구, 기법·행위, 제작품 등의 범주로 나누고, 그에 해당하는 하위 항목을 조사하였다.⁵⁾ 전체 조사 어휘 중 본 논문에서는 개념·구성, 도구와 관련된 어휘를 중심으로 정리, 분석하였다.

위해 Protege-5.3.0-win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 5) 본 연구는 2007년부터 진행된 국립국어원의 민중생활어조사 연구 내용 중 2007년부터 필자가 조사, 정리한 생활어휘의 자료를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밝힌다. 2007년의 조사 자료는 관련 어휘 발굴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된 것이므로 조사한 개별 어휘를 나열하는 방식으로 정리한 보고서로 본 논문에서 관련 어휘의 분화 양상을 밝혀 어휘 간의 상하 관계를 정리하고, 상하 관계의 구조에서 어떠한 내부적 기제가 반영되어 있는지를 명명 기반을 정리한 것과는 차이가 있다 [국립국어원(2007) 연구 참조].

2. 목공 개념 · 구성 관련 어휘

2.1. 수집 어휘

목공 개념과 구성에 관련된 어휘는 목공 작업을 이해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알아야하는 용어와 목공 작업에서 목공예품의 종류와 관계 없이 목공의 부분 명칭에 해당되는 어휘를 정리하였다. 또한 상위 범주의 어휘와 관련된 하위 범주의 어휘를 함께 정리하였다. 목공 개념 · 구성 관련 어휘는 ‘턱, 흠, 장부, 장부촉, 이음, 맞춤, 변죽, 풍혈, 알판, 개판, 천판, 벽선, 발, 족대, 감잡이, 거머쇠 장식, 경첩’ 등 17개 항목에 대해 조사하였다. 다음은 조사한 17개 항목 어휘와 그 하위 범주의 어휘를 정리한 것이다.

- (1) 턱/테가리⁶⁾(평평한 곳의 어느 한 부분이 갑자기 조금 높이 된 자리)
- (2) 흠(물체에 오목하고 길게 팬 줄)
- (3) 장부(한 부재의 구멍에 끼울 수 있도록 다른 부재의 끝을 가늘고 길게 만든 부분)

[하위어형]

- ① 턱장부(턱이 진 장부)
 - └ 쌍턱장부(雙턱장부: 한 장부의 양쪽에 턱이 달린 장부)
- ② 쌍장부(雙장부)/두쌍장부(두 개의 장부가 장부 폭 방향으로 나란한 장부)

6) 수집한 어휘를 제시할 때 ‘└’ 기호와 ‘/’ 기호를 표시하여 정리하였다. ‘└’ 기호는 앞서 제시한 어휘의 하위 범주의 어휘를 나타낼 때 표시하였고, ‘/’ 기호는 같은 의미로 사용하는 어휘를 나타낼 때 표시하였다. 예를 들어 (3)① ‘턱장부└ 쌍턱장부’의 경우는 ‘턱장부’ 하위 범주의 어휘에 ‘쌍턱장부’ 어휘가 조사되었음을 나타내는 말이다. 또한 (3)② ‘쌍장부/두쌍장부’의 경우는 ‘쌍장부’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어휘인 ‘두쌍장부’를 제시한 것이다.

- ③ 부채장부/숨은연귀(燕口)촉짜임(한 쪽은 넓고 다른 쪽은 좁아 단면이 사다리꼴로 된 장부)
 - ④ 주먹장부/열장, 열장장부(주먹처럼 끝이 넓고 안으로 갈수록 좁게 된 장부)
 - ⑤ 지옥장부(地獄장부: 장부에 썩기를 미리 꽃아서 박으면 빠지지 아니하게 되는 장부)
- (4) 장부촉(장부鑢)/장부머리(이음이나 끼움을 할 때 구멍에 끼우려고 만든 장부 끝)

[하위어형]

- ① 긴촉(긴鑢: 촉이 긴 장부촉)
 - ② 단촉(短鑢: 돌기가 짧은 장부촉)
 - ③ 막장부촉(막장부鑢: 다른 재목에 마구 구멍을 뚫어 끼우게 한 긴 장부촉)
 - ④ 숨은장부촉(숨은장부鑢: 한 목재의 장부가 다른 목재 속에 들어가 끼어 그 이음면이 드러나지 않는 장부촉)
 - ⑤ 턱장부촉(턱장부鑢: 턱이 저서 이단으로 된 장부촉)
 - ⑥ 쌍촉(雙鑢: 두 개로 된 장부촉)
 - ⑦ 열장 장부촉/주먹장부촉(열장 장부鑢: 비둘기 꼬리 모양으로 끝을 조금 넓게 하고 안쪽을 좁게 하여 끼우면 빠지지 않게 한 장부촉)
 - ⑧ 은못촉(隱沒鑢: 두 나무를 한 데 붙일 때 다른 나무로 깎아서 두 재목이 떨어지지 아니하게 박는 장부촉)
- (5) 이음(목재를 연결하는 것, 연결하는 부분)

[하위어형]

- ① 줄이음(맞물리는 홈을 판 목재를 길게 잇는 길이어음의 하나)
- ② 주먹장이음/열장이음/띠열장이음(한 부재에는 주먹장을 내고 다른 부재에는 주먹장 구멍을 파서 물리게 하는 길이어음)
- ③ 반턱이음(半턱이음: 두 목재를 서로 반턱이 지게 깎아 잇는 일)
- ④ 나비장이음/나비은장이음(나비隱장이음: 두 목재 사이에 나비 모양의 나무쪽을 끼워 목재를 길게 잇는 길이어음의 하나)

(6) 맞춤(두 목재를 서로 직교(直交) 또는 경사각으로 접합함. 또는 그 자리)

[하위어형]

- ① 사개맞춤/사개물림(모서리에서 여러 갈래의 장부를 만들어 짝지 끼듯이 엇갈리게 한 맞춤)
- ② 송어턱맞춤/송어턱짜임(보7)의 목을 가늘게 하여 기둥 화통 가지에 끼이게 하는 맞춤)
- (7) 변죽(邊죽: 그릇이나 세간, 과녁 따위의 가장자리)
- (8) 풍혈(風穴: 나무 그릇 따위의 공예품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잘게 새긴 꾸밈새)
- (9) 알판(목제품을 이루는 판재)
- (10) 개판(蓋板: 목반자 위에 까는 널빤지)
- (11) 천판(天板: 목제품의 뚜껑이 되는 널)
- (12) 벽선(기둥에 붙여 세우는 네모진 굵은 나무)
- (13) 발(가구 따위의 밑을 받쳐 균형을 잡고 있는, 짧게 도드라진 부분)
- (14) 족대(足臺: 목기류나 가구류를 놓을 때, 발밑에 건너대는 널)
- (15) 감잡이(두 부재를 감아 목재의 이음을 보강하는 ‘ㄷ’자 모양의 쇠조각’으로, 목가구에서 접합 부분이나 모서리 부분을 보강을 위해서 부착하는 장식)
- (16) 거머쇠장석/거머리장석(제품의 접합 부분이나 모서리 부분을 보강을 위해 박는 쇠붙이)
- (17) 경첩(여닫이문을 달 때 한쪽은 문틀에, 다른 한쪽은 문짝에 고정하여 문짝이나 창문을 다는 데 쓰는 철물)

7) 칸과 칸 사이의 두 기둥을 건너질러 도리와는 ‘ㄷ’ 자 모양, 마룻대와는 ‘ㄱ’ 자 모양을 이루는 나무.=들보.

2.2. 수집 어휘 분석

목공 개념·구성 관련 어휘는 17개 조사항목에 해당되는 어휘와 관련 어휘, 하위 항목 어휘를 정리하였다.

한국 목공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목재와 목재를 연결할 때 못이나 다른 인공적인 접착물을 사용하지 않고 홈을 파서 나무와 나무를 연결한다는 것이다. 이를 전문 용어로 ‘장부’[(3)의 어휘], 줄여서 ‘장’이라고 한다. ‘장부’의 사전적 의미는 ‘한 부재의 구멍에 끼울 수 있도록 다른 부재의 끝을 가늘고 길게 만든 부분’으로 ‘순자’(筭子)나 ‘통예’(通柄)라기도 한다⁸⁾. 수집된 어휘를 보면 이 ‘장부’와 관련된 하위 범주의 어휘가 많이 나타나는데, 관련 어휘가 생산적인 것은 작업자들에게 이 ‘장부’는 중요한 작업이며, 이것이 한국 목공의 특성을 잘 반영할 어휘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작업의 중요도에 따라 어휘 생산성이 높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장부가 두 개인 경우는 ‘쌍(雙)장부, 두쌍(雙)장부’라 한다. 이 두쌍장부는 두 개의 장부가 장부 폭 방향으로 나란한 장부이다. 이 두쌍장부는 기둥에 홈을 파고 쇠목은 축⁹⁾을 만들어 조립하는 기법으로, 상하좌우로 결합되기 때문에 결속력이 매우 우수하다고 한다. 이는 장부의 [개수]를 반영한 어휘이다.

‘턱장부’는 장부의 모양이 ‘턱’이 있는 것으로 턱이 양쪽에 있는 경우는 ‘쌍턱장부’라 한다. 이는 그 끝을 길게 이은 두 부재(部材)의 비틀림을 막기 위한 장부이다. ‘부채장부’와 ‘주먹장부’는 ‘장부’의 모양이 ‘부채, 주먹’처럼 생겨서 그 [모양]을 반영한 이름이 붙은 것이다. 부채장부를 소목장은 ‘숨은연귀축짜임’이라 말하기도 했는데 이는 한 쪽은 넓고 다른 쪽은 좁아 단면이 사다리꼴로 된 장부이다. 축과 홈의 개수는 1개에서 여러 개로 제작하는 데, 천판은 홈을 만들고, 변죽은

8)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9) 축(鑿): 긴 물건의 끝에 박힌 뾰족한 것.

촉을 만들어 결합한다. 이 어휘는 ‘숨- + -은 + 연귀(燕口) + 촉(鑢) + 짜임’의 조어형으로, 연귀(燕口)는 ‘두 재를 맞추기 위하여 나무 마무리가 보이지 않게 귀를 45도 각도로 비스듬히 잘라 맞춘 곳’으로 원형인 ‘연구(燕口)가 ‘연귀’ 형태로 발화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¹⁰⁾. 한자어 ‘연귀’는 제비입모양을 닮아서 붙인 이름으로 소목장을 실제로 ‘연귀촉’을 ‘제비촉’으로도 사용한다고 한다. ‘숨다’라는 어간을 사용한 것은 나무의 마무리가 결합으로 보이지 않음을 나타내는 말이므로, ‘숨은연귀촉짜임’이라는 어휘는 [속성], [모양]이 반영된 어휘임을 알 수 있다.



[사진 3] 숨은연귀촉 1



[사진 4] 숨은연귀촉 2

주먹장부는 주먹처럼 끝이 넓고 안으로 갈수록 좁게 된 장부이다. 목재의 길이가 짧을 경우, 목물 보수 시 부목을 교체하지 않고 일부만 수리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 등에 주로 이런 장부 모양으로 목재를 결합한다고 한다. 주먹장부는 ‘열장장부’라고도 한다.

10) ‘연귀(燕口)를 ‘연구(燕口) + 의(관형격 조사)’의 형태로도 볼 수 있으나 다른 조사 어형에서는 이러한 결합형을 찾을 수는 없었다. ‘아귀’가 ‘아구’형으로도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처럼 ‘귀’와 ‘구’의 발화상에서의 교체는 여러 어형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므로 연구, 연귀의 사용도 같은 맥락으로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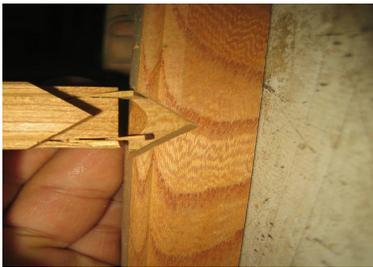
지옥(地獄)장부는 장부에 썰기를 미리 꽃아서 박으면 빠지지 아니하게 되는 장부를 말한다. 장부의 축에 톱자국을 비스듬히 내고, 장부의 홈은 나뭇결과 직각방향으로 판 다음, 썰기에 물을 묻혀서 축으로 밀어 넣고, 장부의 홈을 망치로 치면서 결합시킨다. 이때 썰기가 들어가면서 장부의 축이 벌어지고, 홈이 비스듬히 깎은 부분에 맞물리면서 전체적으로 장부가 고정된다. 접착제나 못이 불필요하며, 장부가 절대로 빠져 나오지 않는다.



[사진 5] 주먹장부 1



[사진 6] 주먹장부 2



[사진 7] 지옥장부 1



[사진 8] 지옥장부 2

‘부채장부, 주먹장부, 턱장부’라는 어휘는 모두 [모양]을 명명기반으로 하는 어휘이다. 지옥장부라는 어휘는 ‘지옥 + 장부’의 합성어형으

로 ‘지옥’이라는 이름은 소목장의 말로는 ‘한 번 들어가면 빠져나오지 못해서’라는 [속성]을 반영한 어휘라고 한다¹¹⁾. 따라서 (3)의 ①~⑤에 제시된 장부와 관련된 하위 어휘는 [모양], [개수], [속성]을 반영한 어휘이며, 이러한 명명기반을 표현하기 위해 ‘주먹’과 같은 신체 어휘, ‘부채, 연귀(燕口)’와 같은 물건, 동물 어휘, ‘쌍’, ‘지옥, 턱’과 같은 수, 공간, 모양과 관련된 어휘가 결합하여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장부의 하위 범주 어휘는 ‘턱장부, 부채장부, 주먹장부’는 고유어 + 고유어의 합성어형이며, ‘쌍(雙)장부, 지옥(地獄)장부, 숨은연귀(燕口)촉(鋸)짜임’는 한자어 + 고유어, 고유어 + 한자어 + 고유어의 합성어형으로, 목공 관련 어휘에서는 고유어와 한자어가 함께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합성어형은 ‘턱, 부채, 주먹, 쌍(雙), 지옥(地獄), 연귀(燕口)촉(鋸)’과 같은 선행 어휘가 뒤따라 나오는 후행 어휘인 ‘장부, 짜임’을 수식하는 의미관계로 종속합성어의 유형을 띠고 있다.

장부촉은 ‘장부 + 촉(鋸)’의 어형으로 장부에서 끼우려고 만든 끝의 촉 부분을 말한다. 이를 소목장은 ‘장부머리’라고도 하였다. 끝 부분을 ‘머리’라는 어형을 가져와 비유적으로 표현한 합성어형으로 볼 수 있다.

장부촉의 하위 범주 어휘는 (4)에서 제시한 어형으로 ‘긴촉, 단촉, 막장부촉, 숨은장부촉, 턱장부촉, 쌍촉, 열장장부촉(주먹장부촉), 은못촉’과 같은 어휘가 조사되었다. 촉이 긴 장부촉은 ‘길- + -ㄴ- + 촉(鋸)’ 형태의 합성어형으로 고유어 + 한자어 결합 방식을 보인다. 반의어인 짧은 장부촉을 ‘단촉(短鋸)’이라 하였는데 이는 한자 어휘로 고유어인 ‘짧은’이라는 말에 비해 발음의 경제성을 가진 어휘이므로 선택된 어휘이다. 막장부촉은 ‘막 + 장부 + 촉’의 합성어형으로 부사 ‘마

11) 이는 엄태조 소목장의 말로 다른 목수와 소목장이 공유하는 내용인지는 확인하지 못 하였다.

구'의 준말인 '막'이 명사 '장부'에 결합된 비통사적합성어이다. 이는 장부촉을 박은 방법이 마구잡이로 넣는 방법을 반영한 어휘이다. 숨은 장부촉 또한 장부가 다른 목재에 들어가 그 이음면이 드러나지 않는 [속성]을 반영한 어휘로 '숨- + 은 + 장부 + 촉' 형태의 합성어형이다. 턱장부촉과 주먹장부촉은 장부촉의 모양을 반영한 어휘로, '턱, 주먹'이라는 어휘와 결합한 합성어형이다. 주먹장부촉은 열장장부촉이라 하기도 한다. 은못촉은 '은못(隱못)¹²⁾ + 촉(鑢)'의 결합형으로 '두 재목 한 데 붙일 때 다른 나무로 깎아서 두 재목이 떨어지지 아니하게 박는 장부촉'을 말한다. 장부촉의 하위 범주 어휘인 '긴촉, 단촉, 막장부촉, 숨은장부촉, 턱장부촉, 주먹장부촉, 은못촉'의 명명기반은 [모양], [속성], [방법], [재료] 등으로 설정할 수 있다. '긴촉, 단촉(短鑢), 턱장부촉, 주먹장부촉'은 장부촉의 [모양]을 반영한 어휘이며, 막장부촉은 [방법], 숨은장부촉은 [속성], 은못촉은 '은못'이라는 [재료]를 반영한 어휘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명명기반을 표현하기 위해 '긴(길- + ㄴ), 단(短), 턱, 주먹, 막(마구), 숨은(숨- + 은), 은못(隱못)'과 같은 신체나 물건을 나타내내는 명사(주먹, 못)와 부사(마구), 형용사(길다), 동사(숨다) 어형도 결합되어 나타났다. 또한 이들 어휘는 고유어와 함께 단(短), 촉(鑢), 은(隱)과 같은 한자어도 자유롭게 결합되는데, 이러한 합성어형은 '긴, 단, 막, 숨은, 턱, 주먹, 은못'과 같은 선행 어휘가 뒤따라 나오는 후행 어휘인 '장부촉'을 수식하는 의미관계로 종속합성어의 유형을 띠고 있다. 그리고 앞서 살핀 '막장부촉'과 같은 부사(막)가 명사(장부촉)를 수식하는 비통사적합성어형도 나타났다.

(5)에 제시된 어휘는 이음과 관련된 하위 범주 어휘이다. 이음은 '목재를 연결하는 것 혹은 연결하는 부분'을 나타내는 말이다. '줄이음'은 목재의 길이를 길게 있는 길이어음으로, 이는 '줄 + 이음'의 어형인 합

12) 기둥에 보를 끼우기 위하여 기둥의 몸에 장부처럼 깎아 박고 보에 낸 구멍에 맞추게 된, 나무로 만든 못.

성어이다. 이음의 모양이 ‘길이로 죽 벌이거나 늘여 있는 것’과 같은 [모양]을 반영한 어휘이다. ‘주먹장이음’은 한 부재에는 주먹장을 내고 다른 부재에는 주먹장 구멍을 파서 물리게 하는 길이이음으로 이음 부분의 모양이 ‘주먹장(부)’의 [모양]을 하고 있어 만들어진 말이다. 이를 ‘열장이음, 띠열장이음’이라고 하기도 한다. 반(半)턱이음은 있는 두 목재를 서로 반턱이 지게 깎아 잇는 이음을 말한다. 이 어휘는 ‘반(半) + 턱 + 이음’의 형태로 이음의 [모양]을 반턱이 되게 하는 것을 반영한 어휘이다. 나비장이음은 ‘나비은(隱)장이음’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두 목재 사이에 나비 모양의 나무쪽을 끼워 목재를 연결하는 이음으로, 중간에 끼워 넣는 나비 모양의 목재는 두 목재가 이어지면 목재 사이로 들어가 보이지 않으므로 ‘나비은(隱)장이음’이라 한다. 이는 ‘나비 + 은(隱) + 장 + 이음’ 형태의 어형으로 ‘나비’는 [모양]을 반영한 표현, ‘은(隱)’은 [속성]을 반영한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다. 조사된 이음과 관련된 하위 범주의 어휘인 ‘줄이음, 주먹장이음, 띠열장이음, 반(半)턱이음, 나비장이름, 나비은(隱)장이음’은 [모양]과 [속성]을 명명기반으로 하는 어휘로 [모양]의 명명기반을 표현하기 위해 ‘줄, 주먹, 띠, 반턱, 나비’와 같은 물건, 신체 어휘, 동물 어휘 등의 명사 어휘를 선택하였다. [속성]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은(隱)’이라는 한자어를 사용하였는데, 1음절의 한자어를 사용하여 의미를 보충하는 것에 효율적이므로 선택한 방법으로 볼 수 있다. 이음 관련 어휘는 고유어 + 고유어, 한자어 + 고유어, 고유어 + 한자어 + 고유어의 유형으로 고유어와 한자어를 자유롭게 결합하여 사용되었으며, 모두 ‘이음’이라는 핵어를 포함한 내심적 구성을 취하는 합성어형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휘의 왼쪽에 위치한 선행 어휘가 오른쪽에 위치한 후행 어휘를 수식하는 종속합성어의 의미관계를 보였다.

(6)에 제시된 어휘는 ‘맞춤’과 관련된 하위 범주의 어휘이다. ‘맞춤’은 두 목재를 직교나 경사각으로 결합하는 것을 말한다. 하위 범주의

어휘로는 ‘사개맞춤, 승어턱맞춤’이 조사되었다. ‘사개맞춤’은 ‘사개 + 맞춤’의 조어형으로 ‘사개’는 상자 따위의 모퉁이를 끼워 맞추기 위하여 서로 맞물리는 끝을 들쭉날쭉하게 파낸 부분, 또는 그런 짜임새를 뜻하는 어휘로 ‘사개맞춤’은 사개 모양을 한 맞춤을 말한다. 소목장은 사개맞춤이라는 어휘보다는 ‘물리다’라는 어휘를 써 목재가 서로 물리게 한 것을 의미한 ‘사개물림’이라는 어휘를 더 많이 사용하였는데 이를 ‘화통맞춤’이라 하기도 하였다. ‘화통’은 ‘사개’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건설 용어¹³⁾이다. ‘승어턱맞춤’은 ‘승어 + 턱 + 맞춤’의 결합형으로 ‘승어턱짜임’이라고도 하였다. 턱맞춤이라는 어휘는 맞춤의 [모양]이 목재의 턱이 진 것을 반영한 말이다. [모양]이라는 명명기반을 표현하기 위해 ‘사개, 승어, 턱’이라는 어휘를 가져와 사용하고 있다. 관련 어휘의 어형은 고유어 + 고유어형인 합성어로, 선행 어휘인 ‘사개, 화통, 승어턱’이 후행 어휘인 ‘맞춤, 짜임’을 수식하는 종속합성어이다. 또한 맞춤, 짜임과 같은 핵어를 포함하고 있는 내심적 구성을 띠는 어휘이다.

이 외에도 (7)~(17)에서 제시된 목공 개념·구성과 관련된 어휘를 수집하였다. 가구의 주 재료가 되는 목재를 주로 ‘판’(板)이라 하였는데 종류에 따라서 ‘알판(板), 개판(蓋板), 천판(天板)’과 같이 합성어형으로 표현하였고, 다른 조사 어휘와 마찬가지로 고유어, 한자어가 두루 사용되어 나타났다.

13)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3. 목공 도구 관련 어휘

소목장에게 도구는 단순히 도구를 넘어 평생의 벗이라 했다. 실제 소목장의 사용하는 대부분의 도구는 소목장과 오랜 시간을 보내온 손에 익은, 작업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물건이었다.

목공 작업을 위한 도구 관련 어휘는 목공 작업에 사용되는 다양한 도구인 상위 범주 30종과 관련된 하위의 여러 종류의 도구를 정리하였다. 수집된 어휘 중 분화형이 가장 많은 도구는 ‘톱, 끌, 대패, 칼’과 관련된 어휘였다. 이 도구들은 기본 목재를 다듬고, 형태를 잡는 기본 도구이다. 목공의 도구 관련 어휘는 하위 분화형이 많아 개별 어휘로 나누어, 조사 내용을 정리하였다.

3.1. 톱 관련 어휘

(1) 톱

[하위 범주]

- ① 동가리톱/동톱/가로톱/썰음톱(나무를 가로로 자르는 데만 쓰는 톱)
- ② 내릴톱/내림톱/세로톱/장톱/결톱(나무를 세로로 켄 때 쓰는 톱)
- ③ 전정(剪定)톱(나무를 전정¹⁴⁾할 때 사용하는 톱)
- ④ 등대기톱(몸체가 아주 얇고 이가 잘며 날어짐¹⁵⁾이 작은 톱. 구부러지기 쉬워 등에 쇠를 대었으며 정밀한 가공을 할 때 사용)
- ⑤ 양(兩)날톱(양쪽에 날이 있는 톱)
- ⑥ 틀톱/탕개톱(톱에 틀이 붙어 두 사람이 양쪽에서 밀고 당기

14) 식물의 겉모양을 고르게 하고 옷자람을 막으며, 과일나무 따위의 생산을 늘리기 위하여 겉가지 따위를 자르고 다듬는 일.

15) 톱니가 번갈아 좌우로 어긋난 톱날.

면서 켜는 옛날식 톱)

- ⑦ 접톱/접는톱(접을 수 있도록 만든 톱.)
- ⑧ 일(一)자톱(‘一’자 모양의 톱)
- ⑨ 실톱(실같이 가는 톱)
- ⑩ 쥐꼬리톱(톱의 몸 부위는 좁고 두꺼우며 끝으로 갈수록 쥐꼬리처럼 생긴 가늘고 얇은 톱)
- ⑪ 봉어톱(톱날 부분을 볼록하게 만든 양면톱날 톱으로, 모양이 봉어처럼 생긴 톱)
- ⑫ 활톱(활처럼 생긴 톱)
- ⑬ 큰톱(두 사람이 마주 잡고 켜는 톱날이 큰 톱)
- ⑭ 중톱(크지도 작지도 아니한 중간 크기 정도로의 톱)
- ⑮ 거두(巨頭)/노꼬(のこ)톱(톱의 몸 부분 중 윗부분이 아주 크고 넓은 톱)

톱은 나무나 쇠붙이 따위를 자르거나 켜는 데 쓰는 연장으로 강철로 된 얇은 톱날에 날카로운 이가 여럿 있고 용도에 따라 그 모양이 다르다. 조사된 톱과 관련된 어휘는 용도, 모양, 크기에 따른 톱 종류와 관련된 것이다. 톱을 사용하는 행위는 크게 ‘자르다’와 ‘켜다’로 나눌 수 있다. ‘켜다’라는 행위는 목재를 세로로 톱질하여 쪼개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톱도 자르는 톱과 켜는 톱으로 나눌 수 있는데 목재를 가로로 자르는 톱을 ‘동가리톱/동톱/가로톱/썰음톱’이라 다양하게 부르고 있었다. 이 중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명칭인 동가리톱은 ‘동 + -가리 + 톱’의 조어 구성을 가진 합성어이고, 동톱은 동가리톱에서 ‘가리’를 생략한 어형이다. 목재를 잘라 동가리를 낼 때 사용하는 [용도]를 반영한 어휘이다. 가로톱은 목재를 가로로 썬는 용도이므로 [용도]를 그대로 반영하여 ‘가로 + 톱’의 형태를 띠고 있다. ‘썰음톱’ 또한 ‘썰- + -음 + 톱’의 합성어로 목재를 가로로 자르는 행위를 ‘썰다’라는 동사를 가져와 표현하고 있는 어형임을 알 수 있다. 이와 다르게 목재

를 세로로 켜는 용도로 사용하는 톱을 ‘내릴톱/내림톱/세로톱/장톱/결톱’이라 하였다. ‘내릴톱’과 ‘내림톱’은 ‘내리- + ㄷ/口 + 톱’의 조어형을 가진 합성어로 ‘내리다’라는 어휘를 사용한 것은 톱으로 세로로 켜는 행위는 행위의 방향이 위에서 아래로 진행이 되므로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켜는 행위를 하는 톱이므로 ‘결톱’이라 하거나 목재를 세로로 자르는 [용도]로 사용하므로 ‘세로톱’이라는 합성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③의 전정(剪定)톱은 나무, 목재를 전정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톱이다. 전정의 마지막 처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하며, 톱니가 치밀하고 등이 좁은 것이 특징이다. 이처럼 (1)①~③에 제시된 어휘는 [용도]를 반영한 톱과 관련된 어휘와 그 동의어를 제시하였다.

톱 모양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한다. 톱날이 한 면인 것과 양쪽에 톱날이 있는 것이다. 한 면에 톱날이 있는 것은 톱날이 구부러지지 않게 지지해주는 면이 필요한데 톱의 한 쪽 면에 쇠로 등을 대어 작업이 수월하게 한다. 이처럼 톱날이 한 쪽 면에 있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쇠로 된 등을 대어 만든 톱을 (1) ④에 제시한 ‘등대기톱’이라 한다. 이 어휘는 ‘등 + 대- + 기 + 톱’ 형태의 합성어형으로 톱의 [모양]을 반영한 어휘이다. 이에 비해 양쪽 면에 톱날이 있는 톱을 ‘양(兩)날톱’이라고 한다. 한자어인 ‘양’(兩)을 사용하여 날이 2개임을 나타내었다. 양날톱은 한쪽은 켜는 톱니이고 다른 쪽은 자르는 톱니로 앞서 ①에서 제시한 동가리톱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②의 내릴톱으로도 사용되기도 한다. ⑥의 ‘틀톱’은 흥부전에 나오는 박 타는 톱을 떠올리면 된다. 톱에 틀이 붙어 있어 양쪽에서 사람이 밀고 당기면서 톱질을 할 수 있다. 톱날 양쪽에 톱자루의 밀 부분인 톱소매를 하나씩 연결하고, 톱자루 중간쯤에 지지목인 동발을 붙인 다음 톱자루 양쪽 맨 위에 탕개에 걸어 조여서 탕개목을 동발에 고여 놓은 형태이다.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틀톱은 ‘탕개’를 조여서 사용하므로 틀톱을 ‘탕개톱’이라 하기도 한다. ⑦의 ‘접톱/접는톱’은 손잡이를 접을 수 있는 톱을 말하는

데 ‘접- + 톱/접- + -는- + 톱’ 형태의 합성어로 통사적합성어보다 비통사적합성어인 ‘접톱’을 일반적으로 더 많이 사용한다고 한다. (1) ⑧~⑫에 제시된 ‘일(一)자톱, 실톱, 쥐꼬리톱, 붕어톱, 활톱’ 등은 톱날의 모양을 반영한 톱의 명칭이다. 실톱은 톱날이 실처럼 가늘어서 붙여진 이름인데 톱날이 가늘어 얇은 목재에 여러 가지 모양을 도림질¹⁶⁾을 하는 데 사용하는 도구이다. 쥐꼬리톱은 톱날의 모양이 쥐꼬리처럼 생긴 것으로 톱날의 몸체인 앞부분은 넓고, 뒤로 갈수록 폭이 좁아지는 모양으로 나무를 굵게 켜는 데 쓴다. 쥐꼬리 모양의 작은 톱으로 목재를 디자인할 때 주로 사용한다고 한다. 이에 비해 붕어톱은 톱날 면이 붕어 몸통처럼 생겨서 붙인 이름이다. 이처럼 (1) ④~⑫까지 제시된 어휘 ‘등대기톱, 양(兩)날톱, 틀톱/탕개톱, 접톱/접는톱, 일(一)자톱, 실톱, 쥐꼬리톱, 붕어톱, 활톱’은 톱의 [모양]이 명명 기반으로 반영된 어휘이다. 이 명명기반인 [모양]을 표현하기 위해서 ‘등대기, 양(兩), 틀, 탕개, 접-/접는, 일(一), 실, 쥐꼬리, 붕어, 활’과 같은 선행 어휘를 사용하였는데, 양(兩), 일(一)과 같은 수 관련 한자어를 사용하거나 ‘틀, 탕개, 등대기, 실, 활’과 같은 사물 이름을 사용하기도 하고 쥐꼬리, 붕어와 같은 동물 어휘를 사용하여 표현하기도 하였다. 또한 ‘접다’와 같은 용언류의 어휘가 사용되기도 하였다.

톱과 관련된 어휘 중 [크기]와 관련된 어휘도 수집되었다. ‘큰톱, 중(中)톱, 거두(巨頭)/노꼬(のこ)톱’이 이에 해당되는데 거두는 주로 원목을 자를 때 사용하는 톱으로, 자루가 톱니의 아래쪽으로 약간 굽어 인장력과 압축력이 동시에 작용하여 원목을 보다 수월하게 켤 수 있다. 이 톱은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들이 들여온 톱으로 ‘노꼬(のこ)톱’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노꼬(のこ)’는 일본어로 톱을 의미하는 ‘의(のこぎり)’에서 가져온 말이다.

16) 얇은 목재를 오리거나 새겨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드는 일.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톱과 관련된 수집 어휘는 [용도], [모양], [크기] 등의 명명 기반이 반영된 어휘들이 조사되었다. 선행 어휘는 한 자어, 고유어, 일본어의 어종이 자유롭게 결합하여 나타났고, 이 명명 기반을 표현하기 위한 선행 어휘는 ‘내리다, 켜다, 썰다, 접다, 크다’ 등과 같은 용언류 단어가 사용되기도 하고, ‘동가리, 등대기, 틀, 탕개, 실, 활’ 등과 같은 사물 이름, ‘쥐, 붕어’와 같은 동물 어휘, 일(一), 양(兩)과 같은 수 관련 한자어, 중(中), 거(巨)와 같은 크기 관련 한자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였다. 이러한 선행 어휘는 후행 어휘인 ‘톱’을 수식하는 역할을 하는 종속합성어의 의미관계를 가지며, 거두를 제외한 나머지 어휘들은 핵어인 ‘톱’을 가지고 있는 내심적 구성을 취하는 합성어형으로 나타났다.

3.2. 끌 관련 어휘

- (2) 끌(나무를 잇거나 접합시키기 위하여 구멍을 뚫거나 축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연장)

[하위 범주]

- ① 미는끌/손밀이끌/조선식끌/통끌(밀어서 사용하는 끌)
- ② 때림끌/때리는끌/일본식끌/왜끌(망치로 끌 머리를 때려서 사용하는 끌)
- ③ 가심끌(나무에 뚫은 구멍을 다듬는 데 쓰는 끌)
- ④ 굴림끌(날이 안쪽으로 반원을 이룬 끌. 목재의 굴림을 하는 데 쓰는 끌)
- ⑤ 쌍장부끌(자루에 같은 치수의 날이 두 개가 붙은 끌, 쌍장부를 만드는 끌)
- ⑥ 오니끌(오니 모양을 만들 때 사용하는 끌)
- ⑦ 한푼끌(끌의 단면이 한 푼 정도 되는 끌)
- ⑧ 두푼끌(끌의 단면이 두 푼 정도 되는 끌)

- ⑨ 세푼끝(끝의 단면이 세 푼 정도 되는 끝)
- ⑩ 둥근끝(날이 둥근 활 모양으로 생긴 끝, 타원형이나 둥근 모양의 구멍을 팔 때 쓰는 끝)
- ⑪ 세모끝(날은 반듯하나 등이 세모꼴로 된 끝, 나무를 따 내는 데에 많이 쓰는 끝)
- ⑫ 평끝(날이 평평하게 생긴 끝, 결을 평평하게 만들 때 사용하는 끝)
- ⑬ 인두끝(인두 모양으로 생긴 끝, 긴 홈을 파거나 곡선을 다듬는 데 쓰는 끝)
- ⑭ 홈끝(속에 홈이 파인 끝, 조각하는 데 쓰는 끝)

끝은 나무를 잇거나 접합시키기 위하여 구멍을 뚫거나 축을 만드는데 사용하는 연장으로, 좁고 긴 쇠봉의 한쪽 끝에 날을 세우고 반대쪽 머리를 망치로 때려 사용하는 부분으로 나눈다. 끝의 길이는 용도에 따라 다른데 대개 1자¹⁷⁾나 1자 미만으로 만든다. 조선시대의 끝은 나무자루 없이 통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웬만한 용이를 만나도 잘 들어간다. 이후의 끝은 원활한 작업을 위해 날과 손잡이를 끼우는 부분에 ‘목갱이(혹은 반지)’라는 쇠가락을 끼워 만들었다. 이 목갱이는 자루가 파손되는 것을 방지해 주고 오랫동안 쓸 수 있게 해준다. 끝을 이용하는 작업은 끝을 미는 경우와 때리는 경우로 나누는데, 조선시대에는 지금과 같은 쇠망치가 없이 주로 나무망치를 사용했기 때문에 끝이 무거워야 했고, 나무자루가 없이 통쇠로 되어 있는데 힘으로 밀어서 깎는 ‘미는끝’이었다. 손잡이가 다소 길며, 손잡이 위쪽에 목갱이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조선식끝/통끝’이라 하기도 하였다. 이에 비해 때려서 작업을 하는 끝을 ‘때리는끝’이라 하는데 이는 ‘일본식끝’, 혹은 ‘왜(倭)끝’이라 하였다. 이는 일제강점기부터 많이 사용된 끝로 손잡이 나무가 상하지 않도록 목갱이(반지)를 끼우는 것이 특징인데

17) 길이의 단위. 한 자는 한 치의 열 배로 약 30.3 cm에 해당한다.

나무에 구멍을 뚫는 데 쓰는 연장으로 날이 두껍고 목과 자루가 튼튼하게 되어 있다. ‘미는끌, 때리는끌’이라는 어휘는 ‘밀- + -는 + 끌, 때리- + -는 + 끌’의 형태로 끌을 사용하는 [용도]를 나타내는 어휘이고, ‘조선식끌, 일본식끌’이라는 어휘는 ‘조선(朝鮮) + 식(式) + 끌, 일본(日本) + 식(式) + 끌’의 어형으로 지역명을 써 끌의 [원산지]를 반영한 어휘이다. 일본식끌에 비해 ‘왜(倭)끌’은 일본을 낮잡아 쓰는 어휘인 왜(倭)가 결합된 어휘이고, ‘통끌’은 ‘통- + 끌’의 어형으로 ‘통째로의’ 의미를 더한 접두사와 끌이 결합한 형태로 나무 손잡이 없이 쇠로 통째로 된 끌이라는 의미의 어휘이다. (2) ④에 제시된 ‘굴림끌’은 날이 안쪽으로 반원을 이룬 끌로 목재를 둥글게 파거나 새기는 데 쓴다. 목재의 굴림¹⁸⁾을 위해서 사용하는 끌로, 이 어휘 또한 [용도]를 반영한 어휘이다. ‘쌍장부끌’은 자루에 같은 치수의 날이 두 개가 붙은 끌로 쌍장부를 만들 때 사용하는 끌로 ‘쌍(雙) + 장부 + 끌’의 조어형태를 가진다. ‘오니끌’은 오니¹⁹⁾ 모양을 만들 때 사용하는 끌로 이 또한 [용도]를 반영한 어휘이다. 이에 비해 (2) ⑦~⑨에 제시된 ‘한푼끌, 두푼끌, 세푼끌’은 ‘한 + 푼 + 끌, 두 + 푼 + 끌, 세 + 푼 + 끌’의 조어형태로 단위 명사인 푼과 결합된 어형이다. ‘푼’은 길이의 단위로 한 푼은 한 치의 10분의 1로, 약 0.3 cm에 해당되는데 끌의 [크기]가 반영된 말이다. (2) ⑩~⑭에 제시된 ‘둥근끌, 세모끌, 평끌, 인두끌, 홈끌’은 끌의 모양을 반영한 어휘이다. 끌의 모양대로 목재에 구멍을 파거나 조각, 목재를 다듬을 때 사용을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끌과 관련된 수집 어휘는 [용도], [원산지], [크기], [모양] 등의 명명 기반이 반영된 어휘들이 조사되었다. 선행 어휘는 ‘조선(朝鮮), 일본(日本), 왜(倭), 쌍(雙)’과 같은 한자어를 포함하여 고유어가 결합된 형태가 함께 나타났다. 고유어 + 고유어 형이나

18) 나무토막 따위를 모나지 아니하게 깎는 일.

19) 화살의 머리를 활시위에 끼도록 에어 낸 부분.



[사진 9] 각종 끌

한자어 + 고유어 형으로 ‘끌’이라는 핵어를 포함하는 내심적 구성을 취하는 합성어형이 주된 조어형으로 나타났다. 명명 기반을 표현하기 위해서 ‘밀다, 때리다, 굴리다, 등글다’ 등과 같은 용언류 단어, ‘쌍장부, 오니, 인두’와 같은 사물 명사, ‘푼’과 같은 단위 명사, ‘세모, 흙’과

같은 모양을 나타내는 명사 등이 선행 어휘로 사용되었다. 이러한 선행 어휘는 ‘끌’을 수식하는 종속합성어로 의미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3.3. 대패 관련 어휘

(3) 대패

[하위 범주]

- ① 흘날대패/흘대패(날이 한 개인 대패)
- ② 덧날대패/겹대패/왜대패(날이 두 개인 대패)
- ③ 홈대패/개탕(開鑿)대패/끌대패/끌밀이/옆대패/옆훤이/옆훤이기(꺾는 홈을 넓히거나 목재 옆면에 사용할 때 쓰는 대패)
└쌍개탕대패(개탕이 이중형태로 된 대패)
- ④ 턱대패/턱솔대패/변탕(邊鑿)대패(대팻집 한 편에 턱이 있어 제재목이나 치목선의 모서리 면을 반턱으로 깎을 때 쓰는 대패)
- ⑤ 평대패(목재의 면을 평면으로 깎는 데 쓰는 대패)
└긴대패, 짧은대패
└막대패/초련대패(평대패의 일종으로 톱이나 자귀로 켜낸 목재 표면을 초벌로 대강 거칠게 다듬을 때 사용하는 대패. 대팻밥이 잘 빠지도록 대패마구리가 크게 벌어져 있

는 것이 특징)

재대패/중대패(막대패를 밀고 난 뒤에 곱게 미는 대패)
잔대패/마름질대패(마지막 작업으로 마름질로 마감하는 대패)

- ⑥ 모접기대패/귀대패(목재 따위의 날카로운 모서리를 깎아서 좁은 면을 낼 때 사용하는 대패)
- ⑦ 배동근대패/볼록대패(대패를 길게 세웠을 때 가로로 둥글게 생긴 대패)
 - ↳외환대패(덧날 위로 배가 부르다. 둥근 홈을 파거나 목재 내원을 깎을 때 사용하는 대패)
 - ↳내환대패(덧날 아래로 배가 부르다. 목재 둥글게 깎거나 목재 외원을 깎을 때 사용하는 대패)
- ⑧ 배대패/자루대패/썰매대패/오금대패(대패를 길게 세웠을 때 세로로 둥글게 생긴 대패)
- ⑨ 배꼽대패/혹대패(대패 바닥의 날 부분이 배꼽처럼 튀어나온 대패)
- ⑩ 끝날대패/면잡이대패(대팻날을 대패 바닥에 직각이 되도록 끼운 대패)
- ⑭ 배밀이(창호 문살 중 창호지를 바르는 면을 고르게 할 때 사용하는 대패)
- ⑮ 등밀이/등대패(등처럼 굽은 목재 부분을 깎을 때 사용하는 대패)
- ⑯ 살밀이(문살의 등이나 모서리를 밀어 모양을 만들 때 사용하는 대패)

대패는 대팻날의 개수, 대팻집과 대팻날의 각도, 대패의 마름질 기능, 대팻집의 모양, 대패의 기능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뉘어져 있다. (3) ①, ②는 대팻날의 개수에 따른 분류이다. 대팻날이 하나인 대패를 ‘홀날대패/홀대패’라 한다. 이는 우리나라 고유의 대패로 나무의 결 모

양에 따라 대패를 밖으로 밀면서 사용한다. ‘흠- + 날 + 대패’의 어형으로 접두사 ‘흠-’이 결합된 파생어이다. 이에 비해 대팻날이 두 개인 대패를 ‘덧날대패/겹대패/왜(倭)대패’라고 부른다. 이 대패는 일제강점기에 유입되었으며, 대패질을 안으로 당기면서 한다. 훔날대패보다 섬세하게 가공되는 것이 특징이다. ‘덧- + 날 + 대패, 겹- + 대패, 왜(倭) + 대패’의 구조의 어형으로 접두사 ‘덧-, 겹-,’이 결합된 파생어로 사용하거나 한자어 ‘왜’(倭)를 사용하여 합성어로 사용하기도 한다.

대패의 기능에 따른 대패 종류도 다양한데 작업에 따라 대패를 선택하여 특수화된 작업을 하는 것이다. ③의 ‘흠대패’는 목재의 흠 부분에 사용하는 목재로 흠을 만들거나 흠 부분을 넓힐 때 사용하는 대패이다. 흠대패의 형태는 대팻날이 비스듬하게 붙어 있는데, 이는 일제강점기에 들어 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흠대패는 편탕을 치고 난 옆면을 고르거나 또는 옆면을 넓힐 때, 목재의 흠을 만들 때 사용한다. 이를 ‘옆대패/옆훔이/옆훔이기/개탕(開鋤)대패/골대패’라는 다양한 이름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흠대패’가 ‘흠 + 대패’의 합성어형으로 대패의 [기능]을 명명 기반으로 하는 어휘로 ‘흠’이라는 어휘대신에 움푹 패여 들어간 모양을 ‘골’이라는 어휘에 비유하여 ‘골대패/골밀이’라 하기도 한다. ‘골밀이’는 핵어인 ‘대패’가 생략된 어형으로 ‘밀다’라는 행위에 집중한 어휘이다. 또한 목재의 흠, 골을 만들기 위해 목재의 옆면에 대패질을 하므로 ‘옆대패’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기도 한다. ‘옆대패’는 ‘대패’라는 핵어를 제외하고 ‘옆훔이/옆훔이기’라 하기도 하는데 ‘옆 + 훔- + -이 + -기’라는 어형으로 사용된다. ‘옆면을 훔는 것(도구)’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말이다. 한자어를 결합하여 ‘개탕(開鋤)대패’ 하기도 한다. ④ 턱대패는 대패의 [기능]과 [모양]을 반영한 어휘이다. 대패에 턱이 저 있어서 목재에 반턱을 만들 때 사용하는 것이다. 목재의 턱을 만들어 ‘턱대패’라 하기도 하지만 대패에 턱이 저 있어서 ‘턱대패’라 하기도 한다. 대팻집에 구멍을 뚫고 적당한 날을 끼운 대패로,

날이 하나인 흘대패와 날이 두 개인 겹대패/덧날대패가 있다. 널안 등 굴곡 작업이나 목재를 반턱으로 깎는 데 사용되고 있다. 턱대패를 ‘턱 솔대패/변탕(邊鋸)대패’라 하기도 한다. ‘턱 + 대패, 턱 + 솔 + 대패’라는 고유어형, 혹은 ‘변탕(邊鋸) + 대패’의 한자어와의 합성어형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⑤의 평대패는 목재를 평평하게 다듬을 때 사용하는 대패이다. 이 평대패는 ‘긴대패’와 ‘짧은대패’로 다시 범주화할 수 있는데 이는 대패의 [길이]에 따른 분류이다. 이는 ‘길- + ㄴ + 대패, 짧- + ㄴ + 대패’ 어형으로 형용사 ‘길다’, ‘짧다’를 사용하여 [길이]라는 명명 기반을 표현하고 있다. 또한 평대패는 마름질의 기능에 따라서도 ‘막대패, 재(再)대패, 잔대패’로 다시 분류할 수 있다.



[사진 10] 등대패



[사진 11] 귀대패



[사진 13] 흘대패/개탕



[사진 12] 둥근대패/볼록대패

‘막대패’는 ‘막- + 대패’의 조어형으로, 접사 ‘막-’을 사용한 어휘로 이 막대패를 ‘초련(初鍊)²⁰대패’라 하기도 한다. 이는 목재 표면을 초별로 대강 다듬을 때 사용하는 대패이다. 대패질을 처음 할 때 사용하는 대패로 목재 표면을 거칠게 깎는 경우에 사용하는데 대팻밥이 잘 빠지도록 대패마구리가 크게 벌어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다음 마름질 작업을 할 때 사용하는 대패가 ‘재(再)대패’이다. 한자어 접사 ‘재(再)’를 사용한 파생어로 막대패를 사용한 표면을 더 평평하게 다듬기 위해 사용하는 대패이다. 이를 중(中)대패라 하기도 한다. 재대패 사용 후 마름질의 마지막에 사용하는 대패를 ‘잔대패/마름질 대패’라 한다. 이는 ‘잘- + ㄴ + 대패’ 조어형으로 형용사 ‘잘다’를 결합하여 대패 [기능]을 표현하고 있다. ⑥ 모접기대패는 목재 모서리의 파손을 방지하거나 미관을 위해서 사용하는 대패로 모서리 부분을 다듬을 때 사용하는 대패이다. 모서리를 무디게 하여 사용에 도움이 되게 하는 용도이다. 이는 ‘모 + 접(接) + -기 + 대패’라는 어형으로 ‘접(接)’이라는 한자어를 사용한 합성어이다. 이를 ‘귀대패’라 하기도 하는데 신체어 ‘귀’를 사용하여 ‘모가 난 물건의 모서리’의 의미를 더하여 만든 어휘임을 확인할 수 있다. 대패의 모양에 따라서도 대패를 분류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어휘가 ⑦~⑩에 제시된 어휘이다. ‘배동근대패/볼록대패’는 대패의 대팻집 바닥 모양이 배(운송 수단) 모양으로 대패를 세웠을 때 좌우로 곡(曲)이 진 형태이다. 대패 바닥이 볼록 튀어나와 있어서 ‘볼록대패’라고도 한다. 이와 이름이 비슷한 ‘배대패’는 대패를 길게 세웠을 때 상하로 둥글게 생긴 대패로 앞서 제시한 ‘배동근대패’와 비교하면 대팻집이 둥글게 생긴 것은 같지만 배동근대패는 대패를 세웠을 때 가로로(좌우로) 둥근 모양이라면, 배대패는 세로로(상하로) 둥근 모양을 가진 것이 특징이다. 이 배대패는 대팻집이 짧고, 주로 곡

20) 베어 낸 나무를 재목으로 쓰기 위하여 초별로 대강 다듬음. 껍질을 벗기고 웅이를 따거나 대패로 겉면을 거칠게 깎아 내는 일 따위를 이른다.

면을 깎는 데 사용한다. 대팻집이 활등처럼 둥글고 대패는 평으로 되어 있는데 소반의 다리나 테두리 같이 목재 변, 이남박, 함지 등 굽은 곳의 안쪽에 깎을 때 사용한다. 이를 ‘자루대패/썰매대패/오금대패’라고도 하는데 대팻집의 둥근 모양을 ‘자루, 썰매, 오금²¹⁾’을 가져와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배꼽대패/혹대패’는 대패 바닥의 날 부분이 배꼽처럼 튀어나온 대패로 표면을 필요에 따라 여러 가지 모양으로 깎아내기 위한 목공 연장이다. 훔날대패 형태로 대개 대팻손(질손)이 달려 있어 앞으로 내밀면서 사용하도록 만들었는데 턱이 있는 판자나 변죽이 있는 소반 같은 것을 깎을 때 주로 사용한다. ⑩의 ‘곧날대패’는 훔날대패로 대팻날이 직각으로 되어 있는 대패를 말한다. 주로 바닥을 평평하게 고를 때 사용하는 대패로 대팻집 밑면을 수정할 때도 사용한다. 이 대패를 ‘면잡이대패’라고도 하는데 면을 고르게 잡아줄 때 사용하는 대패로 이는 [기능]을 반영한 명칭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국 목공작업 중 창호를 만들 때 사용하는 대패는 ‘배밀이, 등밀이, 살밀이’가 대표적이다. 배밀이 문살에 창호지를 바르는 면을 고르는데 사용하는 것과, 창살을 장식하기 위해 여러 모양으로 굴곡지게 만드는 것으로 나누어진다. 창문 살 따위를 도드라진 부분과 오목한 부분이 있게 파는 대패로 가운데줄을 조금 넓게 세 줄을 판다. ‘등밀이/등대패’는 함지박이나 나막신 따위의 구부튼 등바닥을 밀어 깎는 대패로 나무를 밀어 깎는 도구이다. ‘살밀이’는 문살의 등이나 모서리를 밀어 모양을 낼 때 쓰는 대패로 문살의 표면을 장식하기 위해 사용한다. 대팻날에 여러 가지 모양의 굴곡을 주어 대패 바닥에 문살 폭만큼 홈을 파서 그 홈에 맞추어 날을 끼워 사용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대패와 관련된 수집 어휘는 대패는 대팻날의 개수, 대팻집과 대팻날의 모양, 대팻집의 모양, 대패의 기능 등에

21) 무릎의 구부러지는 오목한 안쪽 부분.

따라 다양하게 나뉘어져 있다. 이는 대패 날의 [개수], 대패 [기능], 대패 [모양] 등에 따라 관련 어휘가 분화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명명 기반을 표현하기 위해 ‘흙날, 덧날, 겹, 왜(倭), 흙, 골, 옆, 턱, 개탕(開鑿), 변탕(邊鑿), 초련(初鍊), 배, 자루, 쌀매, 오금, 배꼽, 흑, 막, 재(再), 중(中), 길다, 짧다, 잘다, 둥글다, 곧다’ 등의 어휘를 사용하였다. 여기에는 사물 이름, 신체 이름,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 형 등으로 다양한 단어가 결합되어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 어휘와 핵어인 ‘대패’는 고유어 + 고유어, 한자어 + 고유어이 어종으로 합성어, 파생어 형태로 나타났다. ‘흙대패, 막대패’처럼 상위어 ‘대패’를 포함하는 내심적 구성을 취하는 합성어는 물론 ‘골밀이, 옆훤이, 옆훤이기, 배밀이, 등밀이, 면잡이’ 등과 같이 ‘대패’가 포함되지 않는 외심적 구성의 단어로도 사용되는 경우가 나타났다. 이들 어휘들은 선행하는 단어가 후행하는 단어를 수식하는 종속합성어의 형태로 의미관계를 가지고 있다.

3.4. 자 관련 어휘

(4) 자

[하위 범주]

- ① 곱자/기역자(나무나 쇠를 이용하여 90도 각도로 만든 ‘ㄱ’ 자 모양의 자)
- ② 정자(丁字)자/티(T)자, 직각자(‘丁’ 자처럼 생긴 모양의 자)
- ③ 연자/연귀자(연귀(燕口)를 맞추는 데 쓰는 45도 각도로 음모진 틀자)

(4) 제시된 자와 관련된 어휘는 자의 모양과 용도에 따른 명칭이다. 자의 [모양]이 명명기반이 되어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를 사용하여 어휘를 사용하고 있다. 연귀자는 연귀(燕口) 작업을 할 때 사용하는 자

로 자의 [용도]를 반영한 이름이다.

4.5. 송곳 관련 어휘

(5) 송곳

[하위 범주]

- ① 국화송곳(나사못 대가리가 들어갈 자리를 파는 데 쓰는 끝 날이 국화 모양으로 생긴 송곳)
- ② 반(半)달송곳(나사 구멍 따위의 둥근 구멍을 뚫는 데 쓰는 날 끝이 반달 모양으로 된 송곳)
- ③ 세모송곳(깊은 구멍을 뚫는 데 쓰는 끝이 삼각꼴 모양으로 된 송곳)
- ④ 네모송곳(송곳날이 네모꼴 모양으로 된 송곳. 용도에 따라 길이가 다양)
- ⑤ 타래송곳/도래²²⁾송곳(나무에 둥근 구멍을 뚫는 데 쓰는 송곳. 잣대가 용수철처럼 꼬여 있고 그 끝에는 날카로운 칼날이 붙어 있다. 큰 구멍을 내거나 구멍을 넓힐 때 사용하는데 큰 구멍을 낼 때에는 미리 조그만 구멍을 낸 후 여기에 날 끝을 꽂아 손잡이를 비비 틀고, 구멍을 넓히고자 할 때에는 나선형의 날을 사용하여 앞뒤로 움직인다.)
- ⑥ 중심송곳/쥐이빨송곳(단단한 나무나 대나무에 정확하게 구멍을 뚫는 데 사용하는 송곳. 송곳날이 조그맣고 넓으면서 뾰족한 세 개의 날로 되어 있으며, 그 중에 가운데 날이 조금 길다. 긴 날을 중심에 대고 돌리게 되면 정확하게 구멍을 뚫을 수 있다.)
- ⑦ 활비비(활 모양으로 굽은 나무에 시위를 매고 그 시위에 송곳 자루를 걸어서 구멍을 뚫는 송곳)
- ⑧ 바곳(허리 부분에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쇠자루가 달린 길

22) 둥근 물건의 둘레.

쪽한 송곳)

(5)에 제시된 송곳 관련 어휘는 송곳의 [모양]을 반영한 어휘가 대부분이다. 송곳의 끝 날 모양에 따라 ‘국화, 반(半)달, 세모, 네모, 타래, 중심, 쥐이빨, 활’ 등의 선행 어휘를 붙여 모양을 표현하였는데, 모양을 표현하기 위해 식물 이름, 동물 이름, 사물 이름 등을 가져와 나타내었다. ‘활비비’와 ‘바곳’을 제외하고는 관련 하위 범주의 어휘는 ‘송곳’이라는 핵어를 포함한 내심적 구성을 취하는 합성어이다. ‘활비비’는 활 모양으로 생긴 송곳의 기능을 하는 도구로 ‘활 + 비비-’라는 어형인데 도구 모양인 ‘활’을 반영하고, ‘비비다’라는 동사 어간을 사용해 도구를 사용하는 행위를 나타내었다. 이 어형은 동사 어간을 그대로 사용하는 독특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3.6. 칼 관련 어휘

(6) 칼

[하위 범주]

- ① 빼죽칼(칼날의 끝이 날카로운 칼)
- ② 삐딱칼(칼날의 끝이 한쪽으로 비스듬하게 기울어져 있는 칼)
- ③ 삼각칼(칼날 끝이 삼각형 모양으로 된 칼)
- ④ 평(平)칼(칼날 끝이 평평하게 생긴 칼)
- ⑤ 먹금칼(먹금을 그을 사용하는 칼)
- ⑥ 호비칼(나무 따위의 속을 호벼 파내는 데 쓰는 칼)
- ⑦ 조각도(彫刻刀: 조각을 할 때 사용하는 칼)

칼과 관련된 어휘는 칼날의 모양, 칼의 용도를 반영한 어휘가 하위 범주의 어휘로 조사되었다. ‘빼죽, 삐딱, 삼각, 평(平)’의 선행 어휘를 붙여 칼날의 [모양]을 나타내었는데, ‘빼죽-, 삐딱-’과 같은 어근 그대로

로를 핵어인 ‘칼’에 붙여 비통사적 합성어를 만들어 사용하는 조어형도 보였다. ‘먹금칼, 호비칼, 조각도(彫刻刀)’는 칼의 [용도]를 나타내는 어휘로 ‘먹금, 조각’이라는 명사를 사용하거나, ‘호비다²³⁾’에서처럼 어근을 사용한 어휘도 함께 나타난다. ‘호비칼’은 몸이 바짝 굽고 칼날이 양쪽으로 나 있으며 주로 나막신 코의 속을 파낼 때 쓴다. 대패질을 할 수 없는 호구진 나무속이나 함지박을 마름질할 때 사용하는 연장이다. 낫과 같이 둥글고 구부러진 날에 자루를 박아 사용하며 [용도]에 따라 크기나 구부러진 정도가 각각 다르다. 대개 날이 큰 것은 날이 한쪽만 있고 작은 것은 양쪽으로 나 있다.

3.7. 망치, 마치, 메 관련 어휘

(7) 망치, 마치, 메(말뚝이나 못 따위를 박을 때, 또는 두 접합체를 맞추거나 끼울 때와 같이 무엇을 박거나 칠 때 사용하는 연장)

[하위 범주]

- ① 나무망치/나무방망이
- ② 쇠망치, 쇠메
- ③ 장도리/장도리메/노루발장도리/못 빼는 망치(한쪽은 뭉뚝하여 못을 박는 데 쓰고, 다른 한쪽은 넓적하고 둘로 갈라져 있어 못을 빼는 데 쓰는 연장)
소도리(작은 장도리. 흔히 톱니를 때려 고르거나 금은 세공을 하는 데 쓴다.)
- ④ 끌방망이(‘끌’로 작업을 할 때 함께 사용하는 나무망치)

(7)에 제시된 상위어 망치에 해당되는 어휘는 재료, 크기에 따라 다양하게 ‘망치, 마치, 메’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망치는 내리치는 머리 부분과 손으로 쥐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재질에 따라

23) 좁은 틈이나 구멍 속을 갠거나 돌려 파내다(표준국어대사전 참조).

쇠로 된 것과 나무로 된 두 종류가 있다. 큰 것은 ‘해머’(hammer)나 ‘쇠메’라고 하고, 작은 것은 ‘망치’나 ‘장도리’라고도 한다. 쇠파치는 목수는 물론 석수, 대장장이들이 주로 사용하고, 나무망치는 목수들이 끌을 쓸 때나 맞춤을 할 때 사용한다. (7)의 하위 범주로 제시된 어휘를 보면 망치의 [재료]에 따라 ‘나무’와 ‘쇠’를 선행 어휘로 선택하여 ‘망치, 방망이, 메’와 결합하여 표현하고 있고, ‘장도리’는 관련 어휘에서 [용도]를 반영하여 ‘못빼는망치’라 하기도 하고, 장도리의 [모양]을 반영해 ‘노루발장도리’라 하기도 하였다. 이는 장도리 면 중 못을 빼는 부분의 모양이 ‘노루발’처럼 생겼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3.8. 자귀 관련 어휘

(8) 자귀(나무를 깎아 다듬는 연장의 하나)

[하위 범주]

- ① 대(大)자귀/자귀/대삼(大鉋)
- ② 중(中)자귀/중삼(中鉋)
- ③ 손자귀/소삼(小鉋)
- ④ 자귀머리, 절삭날, 자귀밥

‘자귀’는 나무를 깎아 다듬는 도구로, 나무 쯤대 아래에 넓적한 날이 있는 투겁을 박고, 쯤대 중간에 구멍을 내어 자귀를 가로 박아 만든다. 목재를 찍어서 깎고, 가공하는 연장으로 도끼와 비슷하게 생겼으나 도끼날이 자귀에 평행하게 박혀있는 반면 자귀날은 자귀와 직각방향으로 박혀있다. 일본 자귀는 굽어진 자귀에 날을 직접 박는 데 비해 우리나라의 자귀는 자귀날을 자귀에 직접 박지 않고 나무토막에 날을 박고, 나무토막 중간에 자귀를 끼우게 된다. 이때 박은 자귀가 빠지지 않게 썰기를 박아둔다. 자귀의 날은 ‘절삭날’이라고 하며 날을 박은 반대편을 ‘자귀머리’라고 한다. 자귀질은 도끼와 같이 큰 힘으로 내려치는

것이 아니라 굴곡면이나 고른 면을 주로 깎는 것이기 때문에 큰 힘보다는 정확하게 깎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때 깎아서 생기는 나뭇조각을 ‘자귀밥’이라 한다. 자귀와 관련된 어휘는 앞서 정리한 ‘절삭날, 자귀머리, 쥐귀발’과 같은 부분 명칭을 나타낸 어휘와 함께 [크기]에 따른 종류도 조사되었다. 크기에 따라 한자어 대(大), 중(中), 소(小)를 핵어인 ‘자귀’에 붙인 고유어와 한자어인 대삼(大鋸), 중삼(中鋸), 소삼(小鋸) 어휘도 함께 사용된다. 대자귀는 상위어인 ‘자귀’를 그대로 가져와 사용하기도 하며, 가장 작은 크기의 자귀는 ‘손자귀’라 하여 신체 명칭어를 붙여 사용하기도 하였다.

3.9. 까귀 관련 어휘

(9) 까귀(한 손으로 나무를 찍어 깎는 연장)

[하위 범주]

- ① 옥까귀/옥동귀(까귀의 하나. 양쪽에 날이 있으며 날 끝이 안쪽으로 몹시 옥아 무엇을 후벼 파는 데에 사용)

까귀는 나무를 찍어 깎는 연장으로 날이 가로로 나 있어 자루와 직각으로 되어 있고, 자귀보다 크기가 작은 것이 특징이다. 용도나 모양이 손자귀와 비슷하나 날과 머리 전체가 통쇠로 되어 있다. 자귀와 달리 머리 전체가 쇠로 되어있기 때문에 날만 쇠인 자귀와 구분되며, 단단한 목재에 쓰기 좋고 한번 내리치는 것도 자귀보다 목재에 깊이 들어간다. 머리 부분을 사용하여 망치로 활용하기도 하며 이남박을 깎을 때도 사용한다. 자루를 박을 때에는 썰기를 쓰거나 가죽으로 보임을 대기도 하는데 한참 쓰다가 헐거워지면 가끔 풀어 불려서 사용한다. 까귀가 날이 한쪽에 있는 형태라면, ‘옥까귀’는 양날로 된 까귀를 말한다.

3.10. 그무개 관련 어휘

- (10) 그무개/그므개/그무끼/금쇠(직선의 목재에 치수를 표시하거나 일정한 폭의 평행선을 긋는데 사용하는 도구)

[하위 범주]

- ① 쪼개기그무개(그무개의 형태로 못 대신 칼날을 박아 얇은 나무판에 앞뒤로 그어 판자를 쪼갤 수 있게 만든 그무개)

그무개는 목재에 금을 긋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로 정사각형, 사다리꼴의 나무 가운데를 네모지게 뚫고 그곳에 나무 막대를 끼운 형태로, 그무개 중간에 못을 사용할 경우 금을 그을 수 있을 만큼 못 끝이 나와 있는 형태이다. 이를 ‘금쇠’라 하기도 하는데 금을 긋는 쇠로 [용도]를 반영한 어휘이다. 그무개의 음운 변이형으로 ‘그므개, 그무끼’ 형태 함께 사용된다. 그무개의 하위 범주 어휘로 ‘쪼개기그무개’가 조사되었는데, ‘쪼개- + -기 + 그무개(금 + -개)’의 어형으로 이 또한 [용도]를 반영한 어휘로 볼 수 있다.

3.11. 먹통 관련 어휘

- (11) 먹통/먹줄통(목공이나 석공이 먹줄을 치는 데 쓰는, 나무로 만든 그릇)

[하위 범주]

- ① 먹줄(먹통에 딸린 실줄. 먹을 묻혀 곧게 줄을 치는 데 쓴다)
② 먹도(刀)/먹칼/먹침(針)(먹을 찍어서 사용하는 얇고 납작한 대나무 칼)

먹통은 ‘먹 + 통’의 합성어로 나무 마름질 작업 중 먹선을 그을 때 사용하는 도구로, 목수나 석공들이 자재를 가공하기 위하여 목재나 석재 등에 표를 하거나 글씨를 쓸 때 쓴다. 두꺼운 나무토막에 앞뒤로

두개의 구멍을 파내어 앞쪽에는 먹물을 문힌 솜을 넣어두고 뒤쪽에는 먹줄을 감을 수 있도록 타래를 끼워 놓는다. 주로 소나무, 자단나무, 왕대나무 등의 소재로 하여 만들었으며, 뒤틀리거나 헐거워지면 곤란하기 때문에 목질이 단단하고 결이 고운 나무를 그늘에서 오랫동안 말려 사용하였다. 먹줄은 명주실이나 목화로 만든 실을 2~3겹 꼬아서 사용한다. 무더운 여름에는 명주실이 썩는 경우가 있으므로 먹숨칸에 소금을 조금 넣어두기도 한다. ‘먹도(刀)’는 보통 먹통 밑바닥에 약간의 흠을 파서 끼워 보관한다. 먹도(刀)는 한자어 대신 ‘칼’을 사용하여 ‘먹칼’이라 사용하기도 하고, 침 모양과 같다고 하여 ‘먹침(針)’이라 하기도 한다.

3.12. 기타 도구 관련 어휘

- (12) 도면
- (13) 틀(골이나 판처럼 물건을 만드는 데 본이 되는 물건)
- (14) 양판(대패질할 때 밑에 받쳐 놓는 판판하고 길쭉한 나무판자), 연귀판(나무의 마구리를 45도가 되게 깎을 때 쓰는 틀)
- (15) 환/목(木)줄(줄처럼 쓰는 연장의 하나. 금속이 아닌 물건을 쓸어서 깎는 데에 사용)
- (16) 인두(불에 달구어 천의 구김살을 눌러 펴거나 솔기를 꺾어 누르는 데 쓰는 도구)
- (17) 집게(물건을 집는 데 쓰는, 끝이 두 가닥으로 갈라진 도구)
- (18) 조임쇠(나무를 붙이거나 톱질할 때 양쪽에서 물려 고정시키는 도구)
- (19) 타랭기(탕개에 묶인 줄. 예전에는 보통 여성의 머리카락으로 만들어 사용)
- (20) 솟돌(칼이나 낫 따위의 연장을 갈아 날을 세우는 데 쓰는 돌)
[하위 범주]

- ① 초(初)벌숫돌/초(初)숫돌
- ② 중(中)숫돌
- ③ 마무리숫돌
- ④ 금강사(金剛沙)숫돌

앞서 살핀 어휘 외에도 도면, 틀, 양판, 환, 인구, 집계, 조임쇠, 타랭기, 숫돌 등과 관련된 다양한 어휘가 조사되었다. 관련 어휘는 예문에서 제시하였으며, 숫돌과 관련된 어휘는 숫돌을 사용하는 [작업 시기]에 따라 ‘초(初), 중(中), 마무리’라는 선행 어휘를 사용하여 표현하였다. 작업 과정 중에 해당 숫돌을 언제 사용하는지에 따라 붙인 이름이다. 그리고 [재료]에 따라 ‘금강사(金剛沙)’라는 재료명을 붙여 사용하기도 하였다.

4. 마무리

이상으로 중요무형문화재 제55호로 지정된 소목장(小木匠)의 엄태조 장인의 말을 중심으로 한국 목공(木工) 관련 어휘를 살펴보았다. 제보자를 대상으로 민속지적 조사 방법을 통해 밀착조사를 실시하여 목공에 관련된 219개 어휘자료, 제보자 엄태조 장인(匠人)의 생애구술, 어휘 수집파일, 음성파일 분절 파일 등 녹음자료, 생애구술과 어휘 수집파일의 전자자료, 목공과 관련된 사진자료(62장)와 영상자료(2개 파일) 등을 확보할 수 있었다. 219개의 어휘자료 중 63개는 『표준국어대사전』에 수록되지 않은 어휘도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전체 조사 어휘 중 개념·구성 관련 어휘, 도구에 관련된 어휘를 정리하였다.

조사된 한국 목공 관련 어휘는 상위 명칭과 함께 관련된 하위 명칭의 어휘도 함께 수집할 수 있었으며, 어휘의 활용도에 따라 의미장의

범위도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개념·구성 관련 어휘 중에는 한국 전통 목공의 대표적인 특징인 ‘장부, 장부촉’과 관련된 어휘, 도구 관련된 어휘에서는 ‘톱, 대패, 끌’ 등과 관련된 어휘 분화가 활발함을 알 수 있었다.

수집어휘는 1음절에서 6음절까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는데 하위 범주의 어형으로 갈수록 단어의 합성, 파생으로 어형의 길이가 길어졌다. 또한 어종으로는 고유어 + 고유어, 한자어 + 고유어, 외래어 + 고유어의 형태로 나타났지만 그 중 고유어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이는 현대국어의 어종 특성인 고유어의 비중이 한자어, 외래어 등에 비해 낮은 것에 비해 실제 관련 어휘는 다른 양상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수집어형을 단일어, 합성어, 파생어로 단어유형을 분류하면 하위 범주의 어휘는 합성어형이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합성어를 의미 관계로 파악하였을 때 수식어 + 피수식어(핵어) 구조인 종속합성어가 대부분이며, 합성어형의 구성은 핵어를 포함하고 있는 내심적 구성을 취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수식어인 선행 어휘는 핵어의 [용도], [크기], [모양], [개수], [재료], [방법], [속성], [원산지] 등 의미를 나타내는 말로, 이것이 명명 기반으로 작용하여 관련 어휘를 표현하였다.

목공 관련 어휘에 대한 본 조사가 소목장(小木匠)이 사용하는 말이라는 한정된 조사로 대목장(大木匠)의 어휘와의 비교·대조를 하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지만, 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하여 소목 장인이 실제 사용하는 어휘를 수집, 정리한 것은 나름의 의미가 있는 조사라 여긴다. 한국의 전통문화 중 생활도구와 관련된 의미장을 구축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자 료】

홍기옥(2007), 『2007년도 민족생활어 조사 5』, 국립국어원.

【논 저】

김동귀(2017), 「호장줄을 이용한 가구 제작에 관한 연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제5권 제3호.

_____ (2016), 「목가구의 상감기법에 관한 연구」, 조형디자인연구 제19집 1권.

김민경(2017), 「한국 전통목가구 평상(平床) 연구 2」,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제28권 제3호.

김삼대자(2003), 『소목장』, 국립문화재연구소.

_____ (1994), 『전통 목가구』, 대원사.

김정호(2014), 「조선시대 목가구의 비례미 연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제25권 제2호.

김종태(1991), 『한국수공예미술』, 예경산업사.

박계홍(1983), 『한국민속학개론』, 형설출판사.

박명배(2002), 『전통 목가구 만들기』,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설이환(2015), 「은(東隱) 설석철(薛石鐵)의 전통목가구에 관한 연구」, 한국가구학회지 (한국가구학회) 26권 2호.

유진경(2015), 「한국 전통목가구 제작기법을 활용한 생활가구에 관한 연구」, 한국과학예술통합학회21.

유혜란(2012), 「나선형 철물을 사용한 전통 목구조의 장부 보강기법」,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제16권 제2호.

이용수(2012), 「조선후기 사랑방 목가구의 표현과 의미 구조 분석」,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21(6).

_____ (2010), 「전통가구의 다리와 발 스타일 용어 연구」, 한국가구학회 한국가구학회지 21(1).

_____ (2002), 「한국 목가구의 특성」, 대한기계학회, 춘추학술대회 자료집.

이춘식(2013), 「한국 전통 목가구의 문화적 함의」, 대한공업교육학회지 38권

1호.

임지룡(2002), 「현대 국어 어휘의 사용 실태와 조어론적 특성」, 『배달말』 30.
최공호(2000), 『목조각장』, 화산문화.

【기 타】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동아출판사, 『한국문화상징사전』 1, 2 참조.
민족문화대백과사전 참조.
네이버 지식백과 활용.
한민족언어정보화 검색 프로그램 활용.

원고 접수일: 2020년 7월 10일

심사 완료일: 2020년 8월 6일

게재 확정일: 2020년 8월 7일

ABSTRACT

A Study on Vocabulary Related to Korean Woodwork:
Focused on Vocabulary Related to Woodworking
Concept, Composition and Tools

Hong, Gi-Ok*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ystematically organize vocabulary expressions related to Korean woodwork according to category based on fieldwork. Investigation was conducted using the ethnography survey method; Eom Tae-jo, an artisan who was designated Important Intangible Cultural Asset No. 55 was the subject of this survey in investigating vocabulary related to woodwork in Korea. The basic materials that can be used to build a meaningful network of Korean woodwork by gathering and organizing Korean woodworking vocabulary and expressions are investigated by examining the concepts, composition, materials, tools, behaviors, products, and techniques of Korean woodworking. The results of the survey were classified into vocabulary Excel data, audio data, photo data, and video data. The audio data related to woodworking was segmented and stored by the reporter, and all photographic data corresponding to the vocabulary of the survey were collected. Through the analysis of the col-

* Visiting Professor, Faculty of Self-Designed Major, Uiduk University

lected vocabulary, vocabulary characteristics and the basis for naming of the related vocabulary were confirmed. It is hoped that this study will be used as basic material in building a meaning field related to household tools of traditional Korean culture that is disappearing.

